

익사·골절...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 주의보

광주·전남 최근 5년간 안전사고 152건 발생 울 보성서 70대 숨져...“안전수칙 준수 당부”

본격적인 휴가철과 여름방학을 맞아 피서지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광주·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는 15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2020년 5건(광주 1건·전남 4건) △2021년 22건(광주 1건·전남 21건) △2022년 43건(광주 1건·전남 42건) △2023년 21건(광주 18건·전남 3건) △2024년 61건(광주 0건·전남 61건) 등 물놀이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실제로 지난 4일 오후 2시56분 전남 진도군의 윤림산방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 중이던 A군(10대)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은 출동한 소방헬기를 타고 전남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A군은 수심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진도 사천리 물놀이장에서

40대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해당 남성은 현재 호흡, 맥박 모두 정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에 들어갔다 소중히 생명을 잃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보성군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7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함께한 일행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6일 광양시 옥룡면 동곡계곡에서 20대 남성 C씨가 다이빙을 시도하다 비위에 머리를 부딪혀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사고 직후 하반신의 감각을 느끼지 못했

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물놀이 안전사고가 속출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 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익사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모두 523명이었으며 그중 남자가 385명(73.6%), 여자 138명(26.4%)이었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가 전체의 29.6%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27.3%, 60~69세가 13.2%로 뒤를 이었다.

익사사고로 150명(28.7%) 이상 사망했는데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51.7%

(74명)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사사고는 토요일 20.1%, 일요일 18.5% 등 주말에 발생 빈도가 높았다. 평일에는 금요일이 15.3%로 가장 많았다.

익사사고 발생 장소는 주로 바다, 강 등 야외(46.1%)였으며, 목욕탕·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시설(30.2%), 수영장 등 운동시설(8.8%)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해마다 익사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전체 손상 환자의 0.1% 수준이지만 그중 28.7%가 사망할 정도로 사망 위험이 높다”면서 “어린이와 노인 등을 중심으로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술이나 약물 복용 후 물놀이는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SOCIETY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

☀️ 맑음 05:45 달맞이 17:38
☁️ 맑음 19:31 달맞이 02:04



광주	☁️	26~31
목포	☁️	27~30
여수	☁️	27~33
순천	☁️	26~31
구례	☁️	25~31
광주	☁️	27~31
임도	☁️	27~32
흑산도	☁️	26~32
진남	☁️	26~33
고흥	☁️	26~32
진도	☁️	27~31

목포	맑음(고)	11:26 / --:--
	쌀물(저)	06:06 / 17:22
여수	맑음(고)	06:49 / 20:01
	쌀물(저)	01:36 / 12:53

강풍에 크레인작업자 사상...조선업체 직원 구속

‘위험’ 의사표현에도 작업 지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크레인 운전 작업을 지시해 2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조선업체 직원들이 법정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 김중석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금고 8개월,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된 안전책임자 A씨(42)와 현장소장 B씨(49)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1일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내 조선기자재 업체에서 크레인 운전 작업을 안전조치 없이 강행, 작업 장비 전도·추락사고를 유발해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초속 12m의 바람이 불어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이들은 작업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작업 도중 ‘바람이 불어 작업할 수 없다’는 의사 표현도 목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작업 설비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고 지면에 떨어진다 하도급업체 대표이기도 했던 한국인 노동자는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도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결과가 중하다.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수능 D-100, 폭염 속 열공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5일 광주 서구 화정동 서석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사라진 일본군 추모 ‘충혼비’ 행방 수소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日 군국주의 광기 비추는 거울”

지역 시민단체가 러일전쟁에서 전사한 일본군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충혼비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

5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전남 무안 망운면 일본인 소학교 정문 에 세운 ‘충혼비’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충혼비는 일제가 러일전쟁 이후인 1912년 다이쇼 천황의 즉위 기념 사업으로, 지역의 재향군인회 분회가 현금을 모집해 초등학교 한쪽에 건립한 것 중 하나다.

기록에는 “충혼비는 일본인 소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던 비석으로 한 육군 대장이 세웠다. 당시 학교 앞을 지나

는 모든 사람은 이 충혼비마다 인사를 하며 지나가야 했다”고 적혀 있다.

광복 후 다윗돌로 사용되었던 비석을 마을 주민이 찾아다 보관하고 있었지만 주민이 수년 전 사망하면서 비석의 행방도 모연해졌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일제가 초등학교 앞에 세운 충혼비는 우리에게 일제 식민통치의 상처를 되새기는 상징이자, 전쟁에 매달린 일본 군국주의 광기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며 “일제 침략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도민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당부했다.



있는 두 개의 일본인 소학교 중 하나인 남소학교가 현 망운초등학교 자리에 들어서기도 했다.

일본인 재향군인회 분회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둔기 학대 의심 유기견 구조

만년필 ○...나주에서 학대 의심되는 유기견이 발견돼 동물단체가 구조에 나서.

5일 사단법인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날 31일 나주시 한 마을에서 둔기에 머리를 가격 당한 것으로 보이는 개 1마리를 한 시민이 발견.

나주시유기견센터는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했고, 현재는 한 시민이 임시보호 형식으로 데려가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단체는 복날을 전후해 발생하는 둔기 폭행은 대부분 개고기 소비와 관련된 도살 시도라고 설명.

동물권단체 케어는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개를 죽이려던 자를 찾고 치료비를 돕고자 한다’며 긴급 모금을 공지. 유튜브 영상에는 ‘진짜 가슴이 찢어지네요’, ‘법인은 꼭 처벌받기를’ 등 800여개 댓글이 달려. 나주·조현천 기자

안전보습 몬스타수분

TONYMOLY
street culture

EWG Green 등급 원료 처방
순도 100% 발효농차 사용

THE CHOK CHOK GREEN TEA Watery Cream
CONTAINS 100% PURE GREEN TEA FERMENT EXTRACT
Instead of distilled water
TONYMOLY

토니모리 더촉촉 그린티 수분크림